

로와정, 장성은 2인전 <콰이어트>에 부처

글. 김인선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대표)

로와정과 장성은

로와정은 노유희, 정현석 두 명으로 이루어진 작가로 설치, 영상, 오브제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며 공간 연출을 해왔다. 두 명의 작가가 함께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만큼 작업의 완성까지 주제에 맞는 재료의 선택과 표현 형식을 위하여 오랜 토론이 수반된다. 로와정 작가의 토론 과정은 제 3자가 보기에 혹독하기까지 하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쩌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 왜 해당 위치에 두어야 하는지 등의 아이디어 디벨롭핑의 과정은 한 몸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묻고 답하면서 치열한 공방전도 불사한다.(이들의 논의 과정은 2014년의 영상 작품 <치밀한 작전>을 통해 드러낸 적이 있다.) 그래서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작품에는 굳더더기가 없다.

장성은 작가는 사진을 다룬다. 사진이 아닌 조형예술이라는 포괄적인 전공 안에서 집중적으로 사진 기술을 익힌 작가이다. 사진을 다루는 기술적인 부분 외의 색채 감각이나 공간 감각이 우선적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사진 이미지 속에는 수많은 고찰과 연출의 구현과정이 드러난다. 연출적 퍼포먼스가 우선된 화면을 들여다보면 셔터를 누르는 순간의 완벽한 표현을 위하여 수없이 반복되고 실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이 작가의 사진 제작 과정 속에 퍼포먼스 형식의 레이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질문한 적이 있었다. 작가는 이러한 나의 판단을 부정하였다. 사진이 찰나의 장면을 담아낸다는 시간 제한적 성격 때문에 자칫 '기록 사진'으로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가 연출하는 퍼포먼스적 행위들은 원하는 장면을 뽑아내기 위한 피사체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과정

2인전을 기획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까지 이들의 활동을 보면 접점이 많지 않았다. 이 전시를 기획하기 전까지 서로의 작품은 알고 있지만, 예술의 공통된 화제로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없었다. 과거에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 각각 개인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오직 자신의 작품들로 채울 공간을 상상하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두 작가가 동시에 하나의 공간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특히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고자 할 때는 작품 제작 과정부터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3인 이상의 그룹전은 작품들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관람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시선의 흐름을 고려하는 공간을 연출한다. 이에 비

해 2인전은 공간을 작가별로 뚜렷이 나누었을 때 오히려 어색할 수 있다. 2인전은 서로 다른 성향의 작품들이 같은 공간 안에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전시로서 보여야 하는 부담이 유독 크다.

우선 두 작가가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미팅을 몇 차례 가졌다. 우리는 어떤 작품을 만드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공간 연출에 대한 나름의 상상을 주고 받았다. 초반 회의에서는 '전시'라는 형식을 기존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작가와 기획자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 집중해보았다. 전시가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고 관객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형식이 아니었으면 하여 전시 공간 안에서 관객이 더 긴밀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궁리하기도 했다. 이는 '전시'라는 매개 형식이 궁극적으로 제공하는 효과와 각 작가가 전시를 보러 온 관객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싶은지에 대한 고찰이기도 했고, 관객들이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경우에 대한 상상이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거나 텍스트만이 난무하는 공간, 혹은 시시각각 바뀌거나 각 작가가 점유한 일정 기간 간의 교차가 일어나는 등 전시 공간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에 대한 난상 토론이 몇 차례 있었다. 그렇게 일정 기간의 논의에서는 2인전이라는 형식적 전제로 인하여 그 어떤 결론도 명확하게 도출해 낼 수 없이 모종의 가능성만 이야기하였다.

로와정 작가는 공간을 아래위로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 나와 장성은 작가는 이 아이디어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마침내 작가들은 각자가 주어진 공간을 사용하기 위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기획자로서의 나 역시 각 작가가 원하는 작품 형식과 배치에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래위로 공간을 나누자는 발상은 장성은 작가가 작품 설치를 낮게 해보고 싶으며 관객이 드러눕거나 앉아서 뭔가를 보고 오래 머무르는 방법으로 공간을 구성하면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며칠 뒤 미팅에서였다. 장성은 작가의 바닥에 대한 흥미는 2019년 개인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가는 자신의 전시를 위해 공간 바닥에 노란색 카펫을 깔고 싶어 했다. 원하는 색감과 질감의 카펫은 가격 문제로 바로 좌절되었다. 이후 작가는 관객이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동시에 관람의 색다른 동작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적 연출에 관한 관심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로와정 작가는 본인의 작업이 크게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존재할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후 작가들은 무엇이 이 공간에 놓일 지에 대하여 각자의 아이디어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이 서면 아이디어는 몇 번의 세부 수정안을 통하여 구체화 되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안소연 비평가와의 회의로 비평 텍스트가 작성됐고, 이 전시의 전체적인 모양새를 갖추어 갔다. 아직 전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작가의 입으로 전해진 전시에 대한 상상과 계획안에는 비평가의 글 안에서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작가(writer)적 상상으로 확장되는 경험이 개입되었다.

역할들

안소연 비평가의 글에서 읽을 수 있듯 설치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전히 미지수였던 이 공간의 모

습은 계획 드로잉 단계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에게 독특한 감각을 일깨운다. 그는 몽골에서도 달한 한 장의 편지 속에 그려진 드로잉을 언급하여 가 본 적이 없는 낯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의 온도가 고스란히 전해졌던 경험에 대해 글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전시 <과이어트>에서 지시하는 침묵과 정지의 공간에 잠재되어 있는 움직임의 상상으로써 확장될 수 있는 감각들을 환기하였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윗부분에는 로와정 작가의 작업 <trapeze>가 위치하였다. 천장으로부터 뱃줄로 늘어뜨린 두 개의 나무 막대의 표면에는 각각 “영원히 습득할 수 없는 언어”, “실패를 거듭하는 기술”이라는 영문과 러시아문자가 새겨져 있다. 공중그네를 연상시키는 이 구조물은 공간의 양 끝에 위치하여 각 나무 바의 텍스트를 마주한다. 순간 관객은 정적인 구조물의 상태에서 두 명의 퍼포머가 공간 전체를 휘저으며 점프하고 있는 서커스의 화려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장성은 작가는 그 아래로 <발>, <어깨>, <목> 등 신체 부분을 지시하는 사진 설치를 하였다. 이중 실제 프린트 된 사진은 발과 목을 촬영한 이미지이다. 어깨를 지시하는 구조물 작업은 기존 사진작품을 위한 연출 시 모델의 어깨 부분을 확장하는데 사용했던 오브제다. 관객은 충실한 전통성을 갖춘 프레임된 사진 대신에 벽면에서 비스듬히 빠져나온 구조물 위에서 구깃한 흔적을 가진 이미지와 둥글게 말아버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겨우 왜곡되어 드러나는 이미지, 그리고 아예 사진이 완성되기까지 어떻게 사용되었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용도의 결과물 이전 단계의 오브제를 대면한다. 온전히 이들을 바라보기 위해 몸을 변형시킬 수 밖에 없는 위치인 전시 공간의 아랫부분에서 또 한 번 관객은 적극적인 신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전시를 기획하는 나의 역할에 대한 서술을 시도할 때면 항상 머뭇거리고 있음을 고백해야겠다. 나는 수많은 작가의 고민을 구현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그 결과를 드러내는 매번의 행위가 교차하는 공간 속에서 즐겁거나 고민스럽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여러 종류의 스릴을 만끽하는 자이기도 할 것이다. 이 전시에 다다라 로와정 작가가 새긴 글귀를 되뇌다 보니, 나는 이 위태롭고 경이로운 서커스의 공중그네 공연을 행하는 자이기도, 또한 작가들의 공중그네에서의 곡예를 즐기며 가슴을 졸이는 동시에 넋 놓고 바라보는 자